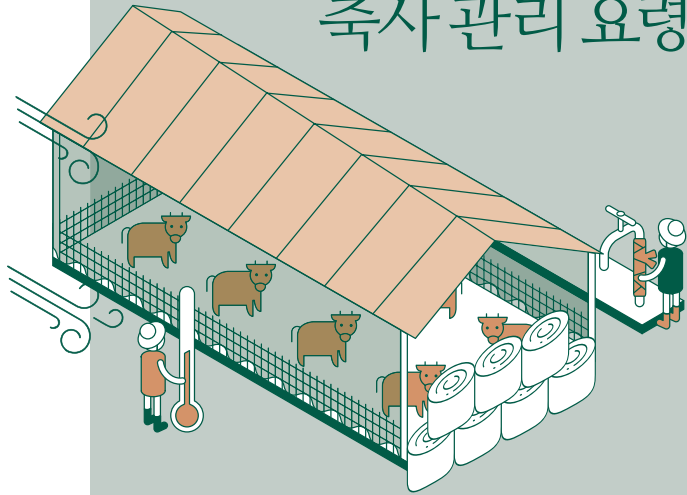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줘야 한다. 적정 온도와 환기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한우가 호흡기질병 등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추위·강풍·폭설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시설의 안전 점검도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겨울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한다. 모래, 염화칼슘 등 제설 대책도 충분히 마련해 줘야 한다.

겨울철 축사 관리 요령



축사 보온·환기 관리

- 차단벽 설치 등으로 한우가 찬 공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송아지는 보온이 잘 되는 송아지 우사에서 따로 관리한다
- 개방형 우사는 차갑고 건조한 강풍이 부는 날에는 윈치 커튼을 내린다. 또는 '담근먹이뭉치(사일리지 곤포)'를 쌓는 방법으로 바람을 막는다
- 단, 윈치 커튼으로 외부 공기를 차단하면 환기 불량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사 상부 등에 최소 환기를 위한 배기팬이나 환기구를 설치한다
- 축사는 환기 유지로 습기에 따른 결로 발생을 방지한다
- 결로가 발생하면 바닥으로 유입돼 바닥이 질척거릴 수 있으므로, 결로가 예상되는 곳의 단열 상태와 환기 상태를 점검한다
- 낮은 기온으로 수분 증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우사의 췌 상태가 불량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깔짚을 수시로 뒤집거나 우사 지붕의 투명 재질을 이용해 햇빛 투과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축사 시설물 관리

- 외부 급수라인·급수시설은 동파 방지를 위한 피복과 전기시설을 재점검한다
- 가온 급수기를 이용한다면 절연상태 등을 미리 점검한다
- 폭설 예보가 있으며 1주일 정도의 비상 연료나 사료를 비축한다. 정전에 대비해 자가발전기를 준비해 둔다
- 노후화된 축사는 폭설에 파손되지 않도록 내부 중간에 지붕 버팀목을 미리 설치해 둔다
- 축사 지붕에 쌓인 눈은 그때그때 제거한다. 축사 온도를 높여 눈이 빨리 녹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 대설, 폭풍 등으로 파손된 축사시설은 긴급히 복구한다
- 폭설, 강풍 등으로 시설이 파손되면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 등의 2차 피해를 막고, 사료 급이 시설과 분뇨처리 시설 등을 수리한다
- 축사가 붕괴되면, 한우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미지근한 물을 공급해 저온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한다
- 섬유질배합사료 등 수분이 많은 사료를 급여할 때는 사료통 내 번질된 사료를 자주 치운다
- 분만실의 습도 및 환기에 주의하고, 마른 깔짚을 충분히 깔아 쥐 갓 태어난 송아지가 오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축사 화재 관리

- 축사 전선 피복 상태를 점검해 벗겨지고 낡은 오래된 배선은 교체한다
- 축사 내부 전기 시설에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 주기적으로 점검해 작동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교체한다
- 난방기를 가동하기 전, 먼지와 거미줄을 제거한다.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 보온등, 온풍기 등 전열 기구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며, 용량이 큰 전기 기구들은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정전·화재 알림 장치를 설치한다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사로

04

하이슈

2020년 제3차·제4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08

여성 한우농가 이야기

명문한우농장
이지원 대표

10

우리는 한우인

영남대학교
여정수 명예교수

14

자조금 소식

'농업인의 날 기념
한우 직거래장터' 성황

24

사양관리 깊이보기

번식우 1년 1산 열쇠

2020

12

한우자조금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04

찾이슈

2020년 제3차·제4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2일에 걸친
토론 끝에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는 소식

08

여성 한우농가 이야기

충남 예산
명문한우농장 이지원 대표

인공지능을 적용한 스마트팜에서 혼자 힘으로
한우를 키우고 있는 당찬 한우인 이야기

10

우리는 한우인

영남대학교 여정수 명예교수

바로 지금 한우인들이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



12

방송에서 만난 한우
현장에서 만난
최고의 한우

한우를 주제로 열린 다양한 행사장에서 찾은
최고 한우의 최상의 매력

14

자조금 소식

14

‘농업인의 날 기념
한우 직거래장터’ 성황

약 3억 2,000만 원의 매출고를 올린
한우 직거래장터에서 확인한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변함없는 사랑

16

‘2020 한우요리경연대회’ 성료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한 학생 대상
한우요리경연대회장에서, 미래 셰프들이 선보인
한우 우둔살 요리의 맛있는 향연



18

‘2020 한우사랑 장학금 전달식’
개최

한우농가가 마련한 한우사랑 장학금 전달식
현장에서 마주한 젊은 인재들의 당찬 포부와
한우산업의 미래

20

11월 1일 ‘제13회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성과 보고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기념
할인행사와 이벤트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소식

21

‘2020 레스토랑&바 홍콩’ 참가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식음료 박람회에서
세계 바이어들의 마음에 ‘프리미엄 소고기’로
자리 잡은 자랑스러운 우리 한우

22

전국한우협회-제로페이
업무 협약
한우사랑 상품권 인기 폭주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기념으로
발행한 한우사랑 상품권 5,000매(10만 원권)
발행 2일 만에 품절



22

홍천군 축산농가
가축사육제한 구역 강화
조례 개정 폐지 촉구

홍천군의 가축사육제한 구역 강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는
홍천 축산농가 활동 상황

23

전국한우협회
“유럽 광우병 발생국
소고기 수입 반대”

아일랜드·프랑스와 소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조건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정부에
유감 표명

23

미부속 퇴액비 살포 및
사육밀도 단속 강화

가축분뇨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 미부속 퇴액비 살포 및 축사의 사육밀도
초과에 대한 단속 강화

24

사양관리 깊이보기

번식우 1년 1산 열쇠

번식농가 경쟁력 향상의 핵심인
‘번식우 1년 1산’을 위한 전문가 조언

26

한우시황·관측

2020년 11월 한우가격 및
출하 사육동향

2020 12 vol. 182
한우자조금 소식지

발행일

2020년 12월 ??일

발행인

민경천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서초동)

케피아회관 3층 홍보·유통부

연락처

Tel. 02.522.3606

Fax. 02.522.4314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기획·디자인

디자인신화 02.324.6852

www.designsh.co.kr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제3차·제4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21년 한우자조금 예산 약 328억 원 소띠해 해돋이 행사 등 60개 사업 운영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과 11월 13일 이틀에 걸친 토론 끝에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정·가결시켰다.

이에 따르면 2021년 한우자조금 총예산은 327억 7,041만 원이며, 이는 언택트와 같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새로운

소비 환경 등에 대응하고 한우 가격 안정과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운용할 약 60개의 한우자조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과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0년 제3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11월 10일 서울 서초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관리위원 1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모두 발언에서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한우산업 전체가 고충을 겪었다”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과 예산이 한우농가와 한

우 소비자들을 위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2021년에는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가 한목소리를 내며 한우농가와 한우산업의 도약을 도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제3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제5기 대의원 선거 추진 경과 및 일정 보고,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등 현안이 많았던 만큼 열띤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날을 넘겨 11월 13일 ‘제4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올해 사업비·운영비 집행률 약 73% 전망

11월 10일 회의에서는 △2020년 한우자조금 조성 및 운용실적 △2020년 한우자조금 납입현황 △2020년 한우자조금 주요 사업 추진현황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전차 회의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제5기 대의원 선거 추진 경과 및 일정 △한우홍보물(양념장) 관련 경위 보고 사항 등이 일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0월 31일 현재, 2020년 한우자조금 총조성액은 286억 7,477만 원으로, 78.9%의 조성률을 보였다. 총 운용비는 108억 3,345만 원으로, 운용율은 35.3%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사업은 더디게 진행됐다”라고 밝힌 후 “불용액 등을 고려하면 2020년 한우자조금 최종 운용률은 72.8%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5기 대의원 선거 추진 경과 및 일정 보고’와 관련해서, 선출구 및 선출구별 대의원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 현재 도별 우선배분방식을 시군별로 배분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차기대 의원 선거에 적용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우농가 컨설팅 사업

예산 재검토

이어서 한우자조금 상반기 감사 보고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한우자조금 상반기 사업의 긍정적인 사항은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한 아프리카TV 한우 먹방 데이 추진 △컨설팅 효과 분석을 위한 농가 출하 내역 구비 △스터디그룹 운영으로 컨설팅 대

상 수혜 농가 확대 등이 꼽혔다. 보완·발전돼야 할 사항에는 △소비 홍보물 제작 사업 추진 시기 단축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오프라인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컨설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예산수립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감사 보고에 나선 장성조 감사는 특히 “한우농가 컨설팅 사업에서 한 농가당 투입되는 예산이 과다하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관리위원들은 한우농가 컨설팅 사업 예산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할 것을 사업 주관 기관에 요청했다.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정·가결

11월 13일 ‘제4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과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과 예산(안)’ 의결이 진행됐다.

우선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은 △2021년 소띠해 맞이 사전 홍보물 제작 외 6건의 사업을 추가 집행하기 위한 예산 증액 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어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 앞서, 한우자조금 사업 및 예산심의 소위원회가 세 차례 열렸다.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서, 가장 논의가 뜨거웠던 항목은 수급안정적립금 예산 일부를 투입하는 농협의 ‘저능력 압소 도태 사업’이었다. 이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관리위원들은 이 항목의 예산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크다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관리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한편, 11월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의는 코로나19 방역 단계 격상에 따라, 부득이하게 서면 의결로 진행하게 됐다.



2021년 한우자조금 총예산 규모 약 328억 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과한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따르면, 한우자조금 2021년 총예산은 327억 7,041만 원이다. 이는 2020년보다 9.8% 줄어든 것으로, 수급안정적립금과 이월금이 각각 △20억 7,703만 원 △30억 2,267만 원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지원금도 1억 원가량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농가거출금 166억 3,200만 원 △정부지원금 93억 2,500만 원 △수급안정적립금 44억 2,297만 원 △이월금 23억 9,045만 원이다. 농가거출금은 2021년 도축마릿수 84만 두, 거출률 99%를 기준으로 산출됐다<그래프>.

이에 따른 세출 계획은 △소비홍보 84억 4,121만 원(25.8%) △유통구조 26억 1,435만원(8.0%) △교육 및 정보제공 63억 3,141만 원(19.3%) △조사연구 10억 3,626만 원(3.2%) △수급

안정 55억 64만 원(16.8%) △운영비 18억 6,519만 원(5.7%) △기타비용 12억 4,707만 원(3.8%) △수급안정적립금 48억 2,518만 원(14.7%) △예비비 9억 910만 원(2.8%) 등이다. 한우자조금은 “수급안정적립금과 기타예비비를 제외한 한우자조금 2021년 세출 예산은 총 270억 3,613만 원으로, 2021년 총세입 즉 농가거출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총액인 259억 5,700만 원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약 11억 원 적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적자 부분은 수급안정적립금에서 전용하지만, 수지균형 예산에 맞춰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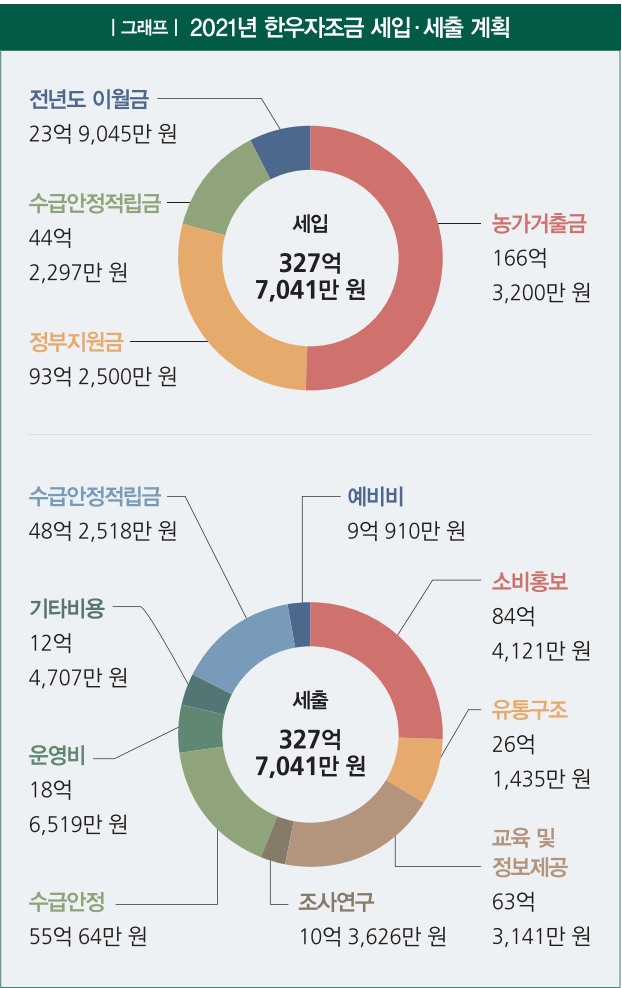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사업 운용에 초점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은 △효과적인 한우 홍보 강화로 한우 가격 안정도모 △한우농가의 자발적·선제적 수급관리 활동 지원 △한우 생산성 향상 및 환경대응력 강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소비활동 지원을 목표로 운영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우자조금 사업 부문별 기본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는 <박스1>과 같다.

한우자조금은 한우 생산 및 수급전망과 코로나19 등 소비 환경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해 약 60개의 사업을 운영한다. 2021년 한우 생산과 수급, 한우 소비 환경은 <박스2>와 같이 전망된다. 한우자조금은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프라인 이벤트, 한우수출 지원사업, 학생 대상 우수성 정보제공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축소·운용한다.

아울러 2021년 소띠해를 기념하는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한우산업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한우이야기’ 다큐를 제작하고, 소띠해 해돋이 행사등도 예정됐다. 이 외에도 한우자조금은 코로나19, ASF·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우농가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운영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한우농가 교육 동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 생산자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신설했다.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과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 후 확정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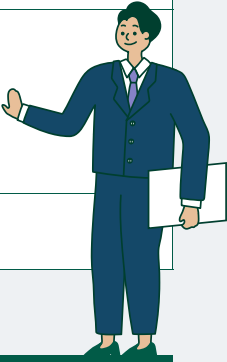
| 박스1 |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목표

- | | |
|----------------------------|----------------------------|
| • 효과적인 한우 홍보 강화로 한우가격 안정도모 | • 한우농가의 자발적·선제적 수급관리 활동 지원 |
| • 한우 생산성 향상 및 환경대응력 강화 |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소비활동 지원 |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 부문별 기본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

	기본 방향	중점 추진 과제
소비홍보	•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소비 홍보 강화 • 모바일 및 온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신규 소비층 확보 •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한우 안전성 홍보	• 온택트(ontact) 시대에 맞춘 온라인·모바일 홍보 강화로 신규 소비층 유입 및 지속적인 한우 소비몰 유도 • 한우에 대한 우호적 인식 증대 및 취식 유발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협찬 및 언론홍보 활동 강화 • 한우 도축두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가정 소비 문화 확산과 저지방 부위 및 부산물 소비 유도로 한우 가격 안정에 기여
유통구조 개선	• 유통감시활동 및 우리한우판매점 홍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도모 • 한우고기 수출시장 확보 및 한우 이미지 제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한우 소비촉진 행사 도모 • 한우고기 수급 여건에 따른 전략적 소비촉진 행사로 소비 확대 • 한우수출 지원 및 외국인 대상 한우 홍보 강화
교육 및 정보제공	•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농가경쟁력 강화 • 환경 정책에 대응한 생산자 인식 제고	•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속 추진 • 한우고기 우수성 발굴 연구용역 실시 • 축산환경과 관련된 규제 및 제재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용역 실시
조사연구	• 현장적응형 조사연구 진행 • 한우고기 우수성 및 과학적 근거 지속 발굴 • 축산환경 개선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근거 자료 개발	
수급안정	• 디지털, 비접촉 등 소비 활성화 방안 다각화 • 선제적 수급관리로 한우 생산과잉 방지 추진	• 부산물과 정육의 소비 확대를 위한 판매 기반 확보 • 자발적·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 도모



| 박스2 |

2021년 사업 환경

한우 생산 및 수급전망	한우 소비 환경
• 사육 327만 두 예상, 2020년보다 2.2% 증가 전망 - 마릿수(두): 2019년 308만 → 2020년 320만(추정) → 2021년 327만(전망) • 도축 84만 5,000두 예상, 2020년보다 7.9% 증가 전망 - 마릿수(두): 2019년 75만 2,000 → 2020년 78만 3,000(추정) → 2021년 84만 5,000(전망) • 가격 평균도매가격 17,500~18,500/kg, 2020년보다 하락 전망 - 가격(원/kg): 2019년 17,965 → 2020년 10월까지 19,910원 → 2021년 17,500~18,500(전망) • 수입 소고기 수입량 약 40만 7,000톤 예상, 2020년보다 소폭 감소 전망 - 수입량(천M/T): 2019년 426 → 2020년 410(추정) → 2021년 407(전망)	• 코로나19로 외식 급감, 경기침체, 소득감소와 일자리 위기 등 사회·경제적 충격으로 소비심리 위축 • 질병 예방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에 대한 관심 고조 • 온택트(ontact) 시대에 맞춘 유통 및 소비행태 변화 - 비대면 판매 및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와 배달문화 활성화 - 화식과 모임 축소로 인한 가정 소비 증가 - 가성비보다는 가격 대비 높은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가성비 소비 증가

나 혼자 다 한다 “인공지능 K-스마트팜 이끌 것”

충남 예산
명문한우농장
이지원 대표



‘한우인’의 삶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바로 ‘그렇다’는 답변이 나온다. 사실 한우농장을 시작하고는 그 선택에 의문이 든 적도 있었지만, 지금에서는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커졌다. 특히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접목한 ‘스마트팜(smart farm)’을 시작하면서, 그 만족감이 더 커졌다.

그렇게 충남 예산 명문한우농장의 이지원 대표는 ‘K-스마트팜 기술 수출’이란 목표를 갖게 됐고, 이것이 한우인 이 대표에게 새로운 활력 요소가 됐다.

“좋은 기회는 우시장에 있습니다.”

충남 예산의 명문한우농장 이지원 대표는 얼마 전 좋은 가격에 아주 좋은 한우 3두를 입식했다. 우시장이 열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다닌 보람이 이렇게 찾아왔다. 입식한 한우들이 소밥도 잘 먹고 농장에도 잘 적응하고 있으니, 2020년 연말도 행복하다. 소띠해, 2021년을 맞이하는 마음도 남다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우리 농장이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평균만 가자’는 것이 그동안의 신조였는데, 내년에는 평균보다 조금 상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9만 한우농가 여러분 모두가 2021년에는 더 넓고 더 높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내 뉘이구나!”

사실 한우를 키우려고 귀농한 것은 아닌데, 벌써 내년이면 5년 차 한우인이 된다. 부모님이 한우농장을 운영해 한우에 익숙했고, 경제관념이 투철한 이 대표에게 한우는 노후자금 파이프라인 손색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두 자녀를 키우면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컸다. 뭐, 부모님이 사양관리에 도움을 줌 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부모님이 저를 강한 한우인으로 키우셨어요. 자금을 마련해서, 오래된 축사를 사서 송아지 8두를 들여 그것이 130두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제 품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남편요? 서울에서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찌면 지금 저기 저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죠(웃음).”

대학에서 대기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였고, 결혼 후에는 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 살았던 이 대표는 이렇게 강하고 당찬 한우인으로 거듭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수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우에 대한 애정은 매년 커졌어요. 그것이 버틸 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를 강하게 만든 것은 ‘책임감’이었다.

“그날은 한우 3두가 폐사했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야겠구나. 내가 다 해야겠구나. 내 뉘이구나.”

‘한우가 왜 그럴까’…사양관리 깊이보기

이 대표가 명문한우농장과 한우를 책임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공부’이고, 이는 이 대표를 ‘무엇이든 다 할 줄 아는 한우인’으로 성장시켰다.

“지식이 ‘돈’이고 경험이 ‘이문’이라고 하잖아요. 농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농장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왜 질병이 생기는지, 왜 한우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그 원인부터 해법까지 알아가는 이 대표의 깊은 공부는 한우 사양관리에 자신감을 더했다. 얼마 전 축산기사 자격시험을 봤다는 이 대표는 축산 전반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털어놨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답을 몰랐을 때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걱정이 앞섰어요. 불안했죠. 그런데 머릿속에 퍼즐이 딱딱 맞춰지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무엇보다 명문한우농장의 생산성이 높아졌다. 처음에는 송아지 설사병에 따른 폐사율이 20%에 달했는데, 지금은 설사병으로 송아지가 폐사하는 일은 없다.

“제가 배운 것을 저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고인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 농장과 공유하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이 대표를 위시한 청년 후계농들이 우리 한우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기대감은 청년 후계농들이 새로운 사양관리 기술을 보다 빨리 받아들이고 한우농장 운영에 기꺼이 접목한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구축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K-스마트팜 수출할 때까지’

“온종일 한우만 보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우농장의 사건·사고는 축주가 없을 때 생기는 거 아시죠. 내가 농장에 없어



도 한우를 봐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어떨까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팜이었습니다.”

공학도였고, 또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하는 남편 덕분에 이 대표는 농장에 IOT를 접목한 자동화 시설을 일찍이 구축하고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로 아이디어를 확장했고, 남편의 도움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가축 생체징후 탐지 시스템’, 즉 열화상카메라로 한우의 열을 감지하고 행동 패턴을 딥러닝(Deep Learning)해, 한우의 발정·질병 등의 징후를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 마디로 한우농장에 알파고를 들인 셈이다. 이 연구성과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9년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으로 연결됐다.

“한우농장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징후를 제 시간에 파악해서 제 시간에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예요. 이 부문에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낫죠. 체온 센서 등을 한우의 몸에 장착하거나 넣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농장의 질병 징후와 발정을 잡아내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이것이 농장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고무적인 것은 앞으로 이 기술은 더 빠르게 학습해 나가며 발전할 것이란 점입니다.”

인터뷰 말미, 이 대표는 한우 500두 사육이 목표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스마트팜이 되면, 이 대표 혼자서도 거뜬히 500두를 사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술이 우리 한우농가 여러분들이 한우 사양관리에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이 기술이 K-스마트팜으로 전 세계에 수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영남대학교
여정수 명예교수

참 관찮은 한우산업 지켜내려면 “한우인들이 빨리 변해야 한다”

한우는 일소, 식구였다. 하지만 이제 한우는 육용우, 소고기가 됐다. 그것이 과연 되겠나 싶었는데, 모두의 노력으로, 한우는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축산물로 그 의미를 갖게 됐다. 이제 한우는 수입 개방, 관세 제로화 시대를 맞아 확실한 차별화를 이뤄내야 하는 소임을 갖게 됐다. 한우 박사 영남대학교 여정수 명예교수는 ‘한우인들의 확실한 미래 인식과 그에 합당한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축을 연구하고, 개량하고, 차별화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통계유전학을 전공한 신출내기 교수는 위의 목표를 세웠고, 중국 연변에 직접 가서 북한의 가축을 찾아오는 등의 열정을 발휘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신출내기 교수는 ‘한우 박사’로 통하게 됐다. 그 시간에 한우인들이 우리 민족산업인 한우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길을 구축해 왔는지, 또 그 과정에서 마주한 수 많았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 냈는지 그래서 한우산업이 얼마나 큰 발전과 변화를 이뤘는지를 직접 목격했고 또 한우산업의 많은 길을 함께 닦았다. 그렇게 한우산업의 산 역사가 됐다.

만추(晩秋)에 만난 영남대학교 여정수 명예교수는 ‘한우인들이 있었기에 지난 40년의 세월이 참 보람됐다’라며 한우와 한우산업에 대한 여전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우는 우리 민족과 삶을 같이 해 왔습니다. 우리 정서와도 잘 맞고요. 한우산업이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해야 하는 당위성입

니다. 확신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우산업은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참 관찮은 산업이란 점입니다. 우리 한우인들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비한다면, 한우산업은 앞으로도 영속할 것입니다.”

‘변화’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

여정수 명예교수는 한우가 소고기료, 또 고급육으로 인식되기 까지 한우인들이 한우 개량에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들었다.

“처음에는 육질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우 개량 성과가 뚜렷해지면서 얼마 안 가서 1+등급이 생겼고, 어느새 1++등급까지 생겼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우인들이 노력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정수 명예교수는 1++을 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순간 정체되고 무뎠던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관세 제로화가 본격화되는 4~5년 후에는 시장이 확 변화할 것

이 자명하고 이는 한우산업에 도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살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우를 잘 키우는 곳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새로운 사양기술을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부에, 생산자단체에, 학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우인들도 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여정수 명예교수는 이 과정에서 한우자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는데, 한우농가 컨설팅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우농가 계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우자조금이 이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우 맛을 차별화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

여정수 명예교수는 한우농가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선발·도태로 한우 개량을 지속하는 일과 그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의 중요성과 아울러 한우가 질병 치유 등의 기능성을 가진 소고기 등으로 완벽하게 맛의 차별화를 이뤄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여정수 명예교수는 일본 화우, 한우, 중국 연변 황우의 고급육을 만드는 유전자를 비교연구한 결과를 그 예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고급육을 만드는 유전자를 화우는 100%, 한우는 70%, 황우는 30% 정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여정수 명예교수는 화우가 고급육을 만드는 유전자를 모두 가진 이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량의 효과라는 점, 더 이상 고급육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린 후 일본에서는 맛의 고급화를 추구했고 결국 차별화를 이뤄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입 개방화 시대 중요한 것은 수입육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맛의 차별화를 이뤄내는 일입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한우고기를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하죠. 고무적인 것은 우리

한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소고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품종이란 점입니다. 우리 민족 정서는 물론 기후, 풍토와도 잘 맞죠. 우리 한우인들이 좀 더 열심히 미래를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정수 명예교수는 한우 출하월령을 26~27개월로 앞당겨도 30~32개월령에 출하하는 것과 같은 육질등급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보다 출하월령을 앞당기면 생산비가 절감되고,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앞당기는 것은 안 됩니다. 먼저 육질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맛 유전자에 대해 연구하고 그러한 한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여정수 명예교수는 수입 개방화 시대 한우의 안전성, 신뢰, 믿음을 지켜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생산이력추적시스템, DNA 검사 등 둔갑판매를 막을 확실한 장치를 도입하고, 둔갑판매에 대한 확실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우 먹을 사람은 한우 먹고 수입 고기를 먹을 사람은 수입 고기를 먹도록, 확실하게 마케팅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우산업에 대한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우농가가 있기에

인터뷰 말미, 여정수 교수는 한우산업이 영속하기 위한 한 가지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자주 간과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우농가가 없으면 한우자조금도, 전국한우협회도, 대학의 축산과도, 농림부의 축산과도 모두 필요가 없습니다. 한우농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우농가를 살려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중심에 두고, 정부가, 생산자단체가, 학계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최고의 한우

11월 방송에서 만난 한우는 우리 한우가 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리며, 한우와 한우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도모했다. 최소 10년 이상 한우 개량에 힘써 최고의 한우를 길러낸 한우농가의 정성을 확인하는 현장, 철저한 위생 관리로 안전하게 한우고기를 유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진짜 한우를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가득한 한우 직거래장터 현장, 미래 셰프들의 한우 요리 솜씨 뽐내기 현장 등은 최고의 건강 먹거리. 안심 먹거리. 맛있는 먹거리가 바로 한우임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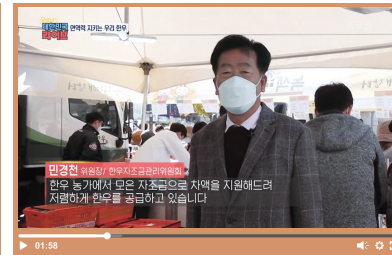
최고의 한우가 전한 최고의 응원!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1월 4일

한우 수능시험장에서 만점 한우가 탄생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2020년 최고의 한우를 선발한 '제23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현장과 시상식 장면을 내보냈다. 2년 동안 한우농가의 정성으로 자란 한우의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의 육질과 육량을 평가해 최고의 한우를 선발하는 장면은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우농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리며, 한우산업의 밝은 미래를 알렸다. 이 한우가 유통업자들에게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장면은 한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한우의 값어치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우농가의 따뜻한 마음은, 만점 한우를 길러낸 대통령상 수상자 태호축산 김용복 대표가 인생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최고의 한우를 선물하며 응원하는 장면

서 찾을 수 있었다. 한우자조금 전문가 자문단인 닥터셰프 황인철 의사가 이 최고의 한우로 선보인 수험생을 위한 영양식 '한우 멸치 버섯 밥'과 '한우 불고기 전골'은 건강 맛집 한우의 매력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한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DHA 성분이 풍부하다"는 닥터셰프의 설명은 한우가 청소년기 두뇌 발달 등에 좋은 음식임을 알리며 영양 만점 한우의 우수성을 뽐냈다.



최고의 한우 최고의 안심 먹거리!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1월 9일

"소들도 충분히 일광욕을 즐겨야 합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날 방송은 최고의 환경에서 건강한 한우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한우농가의 모습을 첫 장면에 담았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는 한우의 모습은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한우산업의 가치를 전달하며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에 손색이 없었다. 또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 먹거리 유통을 위해 노력하는 한우 가공공장의 모습은 '안전 먹거리=한우'의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돋보이는 장면이었다.

방송에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한우자조금이 진행한 한우 직거래장터 현장의 모습도 담겼다. 질 좋은 진짜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한 한우 직거래장터의 모습에서 안심 먹거리 한우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국민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한우농가에서 낸 자조금으로 40~50%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라는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의 설명에는 한우농가가 소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또 소비자들의 요구에 걸맞은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방송 말미에는 면역력 증진이 더욱 필요한 계절을 맞아, '한우 차돌박이 배추찜', '한우 완자 밤조림'과 같은 한우와 찰떡 건강 궁합을 이루는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했다. 면역력 증진에는 역시 한우임이 이 장면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최고의 한우 최고의 요리!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1월 30일

미래 셰프들이 창작한 한우 우둔살 요리의 맛있는 향연이 펼쳐진 현장이 전파를 탔다. 전국의 조리전공 고등학생·대학생들이 한우를 이용해 손맛을 뽐낸 '2020 한우요리 경연대회' 현장이 TV 속에서 펼쳐졌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예선전부터, 예선을 거친 16명의 미래 셰프들이 펼친 한우요리 경연 현장까지 담은 이날 방송은 한우 우둔살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는데 일조했다. 또 학생들이 만든 다양한 한우 우둔살 요리는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하며 한우 요리의 무한한 변주를 알렸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한우 요리에 대한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12월 한우자조금 TV광고 스케줄

KBS2

편성표	요일(횟수)	시간
주말연속극-오삼광빌라	일요일(1회)	20:35
일일드라마-비밀의 남자	수요일(1회)	19:50
수목드라마-바람피면 죽는다	일요일(3회)	14:3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월요일(2회)·목요일(3회)	08:15
통합뉴스룸	화요일(3회)·수요일(3회)	17:50
생생정보	수요일(3회)·목요일(2회)	18:30

MBC

편성표	요일(횟수)	시간
일일드라마-찬란한 내 인생	월요일(2회)	08:50
전지적참견시점 2부	화요일(2회)	19:10
뉴스투데이 2부	일요일(1회)	14:40
뉴스데스크 전	화요일(2회)·수요일(4회)	07:20
생방송 오늘아침	화요일(3회)·목요일(1회)	19:49
생방송 오늘저녁	화요일(3회)·목요일(3회)·금요일(2회)	07:50
스포츠 및 재방송-백파더확장판	화요일(3회)·수요일(1회)	18:10
	토요일(1회)	11:20

1

‘농업인의 날 기념 한우 직거래장터’ 성황 매출 약 3억 2,000만 원… 코로나19 속 고무적인 성과

한우자조금이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진행한 ‘농업인의 날 기념 한우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코로나19로 직거래장터 운영에 제약이 많았고 또 규모도 축소 됐는데, 그런 가운데 거둔 풍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올 한해도 한우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준 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힘이 되고자 진행한 이번 행사에 또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한우자조금은 소비자와 한우농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한 우 가격 안정을 위해 고심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보다 싸고 품질도 좋아요”

매년 명절에 열렸던 직거래장터가 올해 추석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다. 그 아쉬움이 이번 직거래장터에서 단번에 해소됐다. “직거래장터 개장 문자를 받고 매우 반가웠다”라며 한우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고객들 덕분에. 코로나19 속에서 또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새벽 4시부터 시작된 고객들의 발걸음은 ‘직거래장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돈독하게 쌓였는지를 보여줬다.

이런 고객들의 마음을 알기에 한우자조금은 이번에도 40~50%의 할인가로 고객



들을 맞았고, 고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1등급 한우 100g 기준 △등심 7,500원 △안심 8,640원 △채끝 7,930원 △불고기·국거리·산적거리 2,630원 △양지 4,410원이 적용됐다. 우족, 꼬리 등 한우 곰거리에도 파격가가 적용됐다.

이 할인가에 고객들도 만족을 나타냈다. 서울 구로구에서 찾아온 세 자매는 한목소리로 “인터넷보다도 싸고, 냉동했다가 먹어도 맛이 유지될 정도로 품질도 좋아서 안 올 이유가 없다”라며 “명절 때마다 여기서 한우고기를 사서 고기파티를 했는데, 올해 추석에는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라고 털어놨다.

직거래장터에 대한 무한 신뢰

직거래장터에 단골이 많은 이유는 단지 한우 가격이 싸기 때문만은 아니다. 직거래장터에는 품질 좋은 진짜 한우고기를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가득하다. 자녀와 직거래장터를 찾은 한 고객은 “지난 설에 직거래장터를 찾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확실히 맛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끝까지 기다려서 한우고기를 사 갔는데, 과연 보람이

있었다”라며 직거래장터를 찾은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직거래장터에 신뢰가 쌓인 데는 질 좋은 한우고기를 소비자들에게 내놓으려는 생산자단체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우리 브랜드를 기억했다가 재방문해 주는 고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꼼꼼한 선별 작업으로 좋은 품질의 한우고기를 내놓기 위해 노력했다”라면서 “코로나19로 행사가 잘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거리두기가 잘 유지되면서 운영이 돼 한 시름 놓았다”라며 오랜만의 오프라인 행사를 반겼다. 이어서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을 한우농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한우가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우리 생산자단체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녹색한우조합(녹색한우), 대전 세종충남한우조합(하늘소) 이렇게 두 개 업체가 참여했다.

‘가정 내 한우 소비 확산’ 확인

직거래장터에서 만난 고객들의 장바구니에는 한우 등심·안심 등 구이용 부위는 물론 한우 국거리·불고기 부위와 한우 곰거리도 가득 담겼다. 한우가 우리 일상의 밥상에 올라가는 식재료가 됐음을, 한우의 가정 내 소비가 확산되고 있음을 이 장바구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고객은 “식구들과 나눠 먹으려고 등심도 사고, 불고기거리도 사고, 또 겨울이니까 고아 먹으려고 사골도 샀다”라면서 한우고기가 가득한 장바구니를 자랑했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직거래장터에서 최고 매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1+ 등심으로 약 2,200만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라면서도 “국거리, 한우 곰거리 등의 매출액도 못지않게 높았다”라고 전했다.

워킹스루 방식 적용 “오히려 안심”

이번 직거래장터는 소비자간 일정 간격을 둔 채 한우고기를 구매하는 워킹스루(Walking-through)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속 새로운 한우고기 판매 방식 확보란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방역에도 만전을 기했다. 고객들은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낀 후에 입장했고,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독려도 이어졌다. 장터 주변 소독도 수시로 실시했다. 한 고객은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다”라면서 “오히려 안심됐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시식행사, 롤릿 이벤트 등을 진행하지 못했으며, 대기 고객을 위한 공간과 따뜻한 차도 마련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객들은 한우니까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이라며, 오히려 안심시켰다.

한 고객은 “우리가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한우농가들의 노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면서 “맛있는 한우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열어준 한우농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또 다른 고객은 “코로나19로 한우농가 여러분 역시 매우 힘드셨을 것”이라며 “도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한우고기를 애용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렇게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도 변함없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준 고객들은 감사하게도 먼저 “내년 설 한우 직거래장터에서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도 한우고기를 사면 좋겠다”라면서 “그때 또 만나자”라는 약속의 말을 건넸다.🐮



2

‘2020 한우요리경연대회’ 성료 미래 셰프들이 펼친 한우 우둔살 요리 향연



한우자조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역량을 동원해 진행한 제3회 ‘한우요리경연대회’가 술한 화제를 낳으며 성료했다.

지난 11월 20일,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한국조리기능장협회가 주관한 ‘2020 한우요리경연대회’가 열린 한국호텔관광전문대학은 ‘한우 우둔살’로 새로운 요리를 창작하려는 학생들의 열기가 가득했다. 본선에 오른 16명의 실력자가 선보인 한우 우둔살의 재발견 현장, 그 맛있는 순간을 담았다.

온택트 한우요리경연대회 ‘만족’

한우요리경연대회는 지난해까지 전국의 조리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우고기 요리 체험 행사’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자 및 추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한우고기 요리 체험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학교장 또는 교수의 추천을 받은 조리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심사로 대체했다.

지난 11월 7일 한국호텔관광전문대학에서 진행한 온라인 한우요리경연대회 예선에는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27명 등 총 7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온라인 심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심사 위원들이 내내 지켜보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라면서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조리기능장협회 서재실 이사장은 “요즘 학생들은 미디어에 능통해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 같다”라며 “직접 맛과 향을 접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화상으로도 충분히 심사가 이뤄지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고, 결과도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재실 이사장은 “요리경연대회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1차 온라인 심사 후 2차 오프라인 심사를 앞두고 만난 이순옥 심사위원은 “예선 심사에서 우둔살을 서양식으로 또 퓨전으로 새롭게 해석한 레시피들이 눈길을 끌었다”라며 “오늘에서야 그 맛을 평가할 수 있어 심사 시간이 벌써 기다려진다”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래의 요리 전문가들이 한우를 알아가는 시간 되길”

11월 21일에는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각 8명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오프라인 대회는 “이 대회가 미래의 요리 전문가들이 한우고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계



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서재실 이사장의 개회사로 막이 올랐다.

축사에 나선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늘 어린 학생들이 한우와 친근해지길 바랐고, 이렇게 3회째 한우농가와 힘을 합해 대회를 열고 있다”라고 밝힌 후 “앞으로 지속해서 대회를 개최해 소중한 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하겠다”라면서 학생들을 격려했다.

대한민국 조리명장 1호 한춘섭 심사위원장은 “마스크를 쓰고 요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달라”라고 당부한 뒤 “코로나19를 극복할 한우 요리, 세계인의 밥상에 올라갈 명품 한우 요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더했다.

한우 우둔살의 무한 변주

이번 대회의 주 재료는 한우 우둔살이었다. 대회 관계자는 “한우 비선호 부위 소비 활성화 차원”이라며 “최근 가정 내 한우 소비가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라면서 우둔살을 주 재료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등심·안심과 달리 비선호 부위인 한우 우둔살 부위가 학생들의 손에서 어떻게 재탄생할 것인가는 대회를 지켜보는 모든 이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미 조리를 전공 중인 학생들이 만큼 식재료를 다듬는 모습에서부터 이미 프로 셰프의 모습이 보였다. ‘탁탁탁’, ‘탕탕탕’, ‘다다다’ 메인 식재료인 한우 우둔살과 파프리카, 당근, 호박 등 채소를 손질하는 소리가 리듬을 탔다.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한 까닭에 학생들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다.

조리가 시작되자 경연장은 순식간에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고, 앞선 걱정은 기대로 바뀌었다. 그렇게 개성 강한 한우 요리가 하나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요리하는 뒷모습에서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던 반면 위생, 전문성, 창의성, 상품성, 모양 등을 꼼꼼히 살피는 심사위원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학생들이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들인 공을 알기에 더 냉철하게 심사하는 모습이었다. 한춘



섭 심사위원은 “오늘 만들어진 음식들은 아이디어는 물론 맛 또한 좋았다”라고 평가한 후 “특히 우둔살이 다소 질긴 부위인데 찜기 등을 이용해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다”라며 참여 학생들을 칭찬했다.

한우 우둔살의 재발견

드디어 최고의 요리를 뽑는 시간.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명)의 영광은 우둔살로 타르트를 만들어 낸 한국관광대학교 황인에 학생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한국조리기능장협회 이사장상, 2명)은 ‘도라지정과를 품은 우둔롤&냉채’를 선보인 천안병천고 신소희 학생과 ‘오레키에테 한우 우둔 라구파스타’를 만든 신안산대 황주연 학생이 차지했다.

대상을 받은 황인에 학생은 “연습할 때마다 느꼈지만, 한우고기는 정말 고기 냄새가 없고 맛 또한 월등히 좋다”라며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우고기를 재료로 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한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우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송수익 강사(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 교장)의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우와 조금은 가까워진 학생들. 앞으로도 한우고기라는 식재료가 미래의 셰프들에게 좋은 영감이 되길 바라본다. 🍴



황인에 학생

‘2020 한우사랑 장학금 전달식’ 개최 “한우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한우인으로 성장할 것”

한우자조금이 학업에 매진하며 한우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한우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11월 3일 한우자조금 사무국 지하 대회의실에서 ‘2020 한우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한우산업 만년지계를 완성할 한우산업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한우사랑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힌 후 “한우농가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이 장학금이 한우산업을 이끌 우리 젊은 한우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며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민경천 위원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한우농가와 한우산업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한우인의 꿈을 이뤄나가는 귀한 밑거름

한우자조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국 농·축산업계 고등학교 축산

관련 학과 학생, 축산·수의 관련 대학(교)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나눠 장학생을 모집했으며, 미래진로계획서, 학업성적표 등의 심사를 거쳐 고등학생 5명, 대학생 16명 등 최종 21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각각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한우사랑 장학금 전달식 현장에서는 한우농가에 서 정성으로 마련한 장학금이 ‘한우인’의 꿈을 향해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귀농해 일관사육으로 한우 100두를 키우면서, 대학에 다니며 학업에도 매진하고 있는 연암대학교 축산계열 박용민 학생은 “두 아이를 둔 가장”이라고 밝힌 후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가장이다 보니 생활비 마련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은데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됐다”라며 한우농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우사랑 장학금이 한우인의 꿈을 이뤄나가는 학생들의 소중한 밑천이 된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송아지를 입식하는 데, 축사를 짓거나 확장하는 데 등 미래 한우인의 길을 걷기 위한 투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란 뜻을 밝힌 학생이 적지 않았다.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신혜지 학생은 ‘축산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장학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지 학생은 “외할머니가 한우를 키우는 것을 보고 컸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우산업에 관심을 두게 됐다”라며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에 없었던 아주 큰 목소리로 칭찬해 준 외할머니에게 감사한 선물을 하고 싶다”라는 뜻도 더했다.

한우인이란 단단한 꿈을 응원합니다

한우사랑 장학금은 한우산업에 대한 친밀도가 높고 그래서 한우산업의 비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축산업 등록기준 한우농가



자녀, 자손(외·조부모) 또는 본인’으로 그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미래 한우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이란 목적과도 통한다. 실제로 이날 만난 학생들은 한우산업이 얼마나 단단한 산업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한우학과 양영찬 학생은 “1차산업인 한우산업은 그 기반이 탄탄하게 구축된 미래 보장 산업”이라며 한우인의 꿈을 키워가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만난 장학생들은 하나 같이 “한우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한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단단한 다짐을 내보였고, 이는 한우산업의 밝은 미래를 점치기에 충분했다.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축산자원과학과 최승민 학생은

Q 한우사랑 장학금을 받은 소감이 어떤가요?

경북도립대학교 축산과 권예성
축사에 혼자 있다가 소식을 들었고,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우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는데, 그럼에도 우리 한우농가 분들에게서 장학금으로 저의 꿈에 이렇게 투자해 주시고 또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Q 한우사랑 장학금을 어디에 활용할 계획인가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축산자원과학과 최승민
이 장학금을 어떤 의미 있는 곳에 써야 할지 아직은 고민 중인데, 아버지 축사 운영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우선 큼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한우산업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Q 어떤 한우인이 되고 싶나요?

한우농수산대학교 한우학과 양영찬
열심히 한우 개량에 매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완벽한 한우를 길러내겠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꿀 수 있도록 앞서 한우 개량을 시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선포 장학금도 마련해 주신 한우농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신혜지
현재 부전공으로 식품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우에는 건강 등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이 많잖아요. 우수한 한우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Q 한우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암대학교 축산계열 박용민
한우만큼 우리나라 민족성하고 맞는 것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특수성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한우니까요. 한우산업을 더 넓게 더 높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한우사랑 장학금을 마련해 주신 한우농가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주자연농업고등학교 축산과 김중윤
지금까지 한우농가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잘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도 한우인이란 목표를 앞에 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한우농가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11월 1일 '제13회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성과 보고 11월 대한민국이 '한우' 먹었다... 한우 할인판매에서 총 158억 원 매출고

한우자조금이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을 기념해 진행한 다양한 할인행사과 이벤트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한우 소비촉진과 한우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은 2020년 11월 1일 '제13회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을 맞아 11월 한 달을 전 국민 한우 축제의 달로 운영했다. 코로나19로 숯불구이 축제, 지역 한우 축제 등의 오프라인 행사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대형 마트와 연계한 할인행사, 언택트 이벤트 등으로 11월 한 달간 국민들과 소통하며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의 의미를 알렸고, 성과를 냈다. 정부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 '코리아세일 페스타'가 흥행을 거둔 것도 이번 결과에 시너지 효과를 더했다.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와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해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농축협 매장(233개 점) △이마트(138개 점) △홈플러스(140개 점) △롯데마트(111개 점) △롯데슈퍼(462개 점) △GS리테일(320개 점) △서원유통(77개 점) △완주한우협동조합 △여수한우협회직접판매장 △의성서부한우회 △영농조합법인 영주선비촌한우 △SSG.COM △쿠팡 프레쉬 △GS프레쉬몰 △건화 등의 1,490개소 온·오프라인 판매점과 협업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한우 할인판매에서는 총 158억 4,000만 원의 매출고를 거뒀다.

한우자조금이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을 맞아 10월 3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우 축제의 달을 맞아 우리한우판매점의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QR코드 방문 인증 이

벤트'에는 총 6,675명이 응모했으며, 이는 이 기간에 한우 소비가 진작됐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QR코드 방문 인증 이벤트'는 우리한우판매점에 방문해 매장 테이블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즉석에서 당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101명에게 △5만 원 상당 한우 선물세트(201명) △한우불고기버거세트 기프트콘(400명) △아메리카노 기프트콘(500명) 등을 경품으로 증정했다.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인싸력 테스트를 응용해, 쉽고 재미있게 한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한우먹는날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도전! 한우 인싸력 테스트'에는 총 8,417명이 응모했으며, 추첨으로 △30만 원 상당 한우 선물세트(1명) △5만 원 상당 한우 세트(30명) △한우불고기버거세트 기프트콘(70명) 등의 경품을 제공했다.

이 외 전국한우협회에서 진행한 '한우구매 인증 이벤트', '해시태그 이벤트' 등도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한우협회가 제로페이에서 발행한 5억 원 상당의 한우사랑 상품권은 판매 시작 3시간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특히 올 한해 보내준 국민들의 한우 사랑은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다"라면서 "앞으로도 한우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한우농가와 소비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또 한우농가와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5

'2020 레스토랑&바 홍콩' 참가 지속적인 박람회 참가로 한우 브랜드 장기 마케팅 효과 확인 '한우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



한우자조금이 한우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알렸다.

한우자조금은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0 레스토랑&바 홍콩(Restaurant and Bar Hong Kong 2020)'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레스토랑&바 홍콩' 박람회는 2002년 처음 개최됐으며, 이후 식음료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전시회로 발돋움했다. 박람회에는 매해 3만 명 이상의 바이어와 300개 이상의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규모가 축소됐지만, 그럼에도 8,000명의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한우자조금을 비롯한 한우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다"라면서 "과거 '레스토랑&바' 박람회 참가 경험을 토대로 그동안 홍콩 현지에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쌓은 역량과 현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이번 박람회도 성공리에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한우자조금은 벌써 3년째 이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박람회 참가로 한우자조금은 한우 브랜드의 장기적 마케팅 효과를 증대하는 것은 물론 기존 바이어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는 효과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축적된 마케팅 효과는 이번 박람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코로나19로 예년보다 박람회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한우자조금 홍보 부스에는 200여

명의 바이어가 찾아왔다.

이런 흥행 뒤에는 바이어 등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홍보부스 디자인부터 이벤트 운영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한우자조금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한우의 식감, 풍미 등을 직접 경험하게 한 한우 요리 시식회는 새로운 바이어 발굴과 비즈니스 매칭 수요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한우요리의 세계화 가능성을 엿볼 기회도 만들어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한우를 현지에서 메뉴화할 수 있는 '한우 스테이크'와 '한우 불고기 파니니'를 시식메뉴로 선보였다"라고 밝힌 후 "한우 요리를 맛본 방문객들은 '감칠맛과 육즙이 풍부하다'라면서 한우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라며 성과를 알렸다. 또한, 바이어 전문 상담 테이블을 설치해 바이어들과 세계 소고기 시장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며 한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잠재 고객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현지 인력에 대한 한우 관련 교육도 사전에 철저히 진행했다.

전시회 방문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진행한 롤렛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한우 홍보 브로슈어를 비롯한 한우 캐릭터 볼펜, 클리어 파우치, 도마세트 등의 한우 굿즈도 인기였다.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로 우리 한우가 전 세계에서 '프리미엄 소고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6

전국한우협회-제로페이 업무협약 한우사랑 상품권 인기 폭주

전국한우협회가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을 기념해 한우자조금 재원으로 발행한 5억 원 규모의 한우사랑 상품권이 발행 2일만에 품절되는 기염을 토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0월 30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한우 소비촉진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시대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에 따른 것이다. 전국한우협회는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생한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가 우리한우판매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한우를 사랑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한우판매점의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고 아울러 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한우 소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로페이에서 발행되는 한우사랑 상품권은 전국의 우리한우판매점에서만 사용하도록 해, 우리한우판매점의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20% 할인률을 적용해 한우 소비 가격 안정과 한우 소비촉진도 꾀했다.

이렇게 지난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을 기념으로 발행한 한우사랑 상품권 5,000(10만 원권)매는 구매액을 1인당 20만 원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매 2일만에 모두 소진되며, 한우사랑 상품권의 한우 소비촉진 효과를 입증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 맞이 한우사랑 상품권 발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한우사랑 상품권이 국민들이 한우를 더욱 사랑하고 즐기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한우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 내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



7

홍천군 축산농가 가축사육제한 구역 강화 조례 개정 폐지 촉구

강원도 홍천군의 주민 일부가 ‘가축사육제한 구역 강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홍천군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홍천군 축산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천군 축산단체협의회장인 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 김상록 지부장은 ‘가축사육제한 구역 강화 주민청원 반대 건의서’를 홍천군에 제출하고, 홍천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에 강력 대응 중이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가축 사육제한 구역 강화이다. 현행 홍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환경부 지정 기준 권고안보다 강화된 것인데, 이번에 이보다 더 강화된 조례 개정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에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홍천의 축산 후계농 유입을 차단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김상록 지부장은 “이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내보였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처벌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지 말고 축산농가들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홍보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

8

전국한우협회 “유럽 광우병 발생국 소고기 수입 반대”

전국한우협회가 정부가 아일랜드·프랑스와 소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조건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모두 8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아일랜드·프랑스와 ‘5단계(수입 허용 여부 결정)’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아일랜드와 프랑스는 광우병 발생이 빈번한 국가임을 지적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수입 허용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일랜드는 지난 2000년대 유럽을 강타한 광우병 파동 당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기록한 나라로, 2013년과 2015년에 구제역이 재발생한 이력이 있다. 아울러 올해 5월에도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다. 프랑스 또한 2011년과 2016년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브라질 소고기가 ‘비정형 광우병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며 수입을 중단한 바 있는데도, 이번에 수입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유럽산 소고기 수입 시 한우육 영향분석’에서 ‘유럽산 소고기가 호주산 소고기와 품질이 동일하다면 10년 후 한우산업 생산액이 최고 32%까지 줄어들고 국내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2조 7,000억 원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아일랜드·프랑스에서의 소고기 수입은 농축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선 대책을 마련한 후 수입 개방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국민 건강을 뒷전으로 하고 자국 산업 피해 보호 대책 없이 추진되는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라며 “계속해서 수입을 추진하면 전 농가와 소비자가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9

미부속 퇴액비 살포 및 사육밀도 단속 강화

가축분뇨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 미부속 퇴액비 살포 및 축사의 사육밀도 초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계류식 축사와 방사식 축사 등 시설 형태에 따라 산정된 단위 면적당(㎡)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해 계산되며(성우 1두=육성우 2두), 송아지는 젖을 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다. 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 마릿수는 제외한다.

아울러 퇴비 살포 이후 냄새 등 미부속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이 실시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사육밀도 규제에 대한 유예와 기준 변경 등 개선안을 정부에 내고 기준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속이 시행되는 만큼 농가들의 불이익 등 피해가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성장단계 기준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 14개월령	14개월령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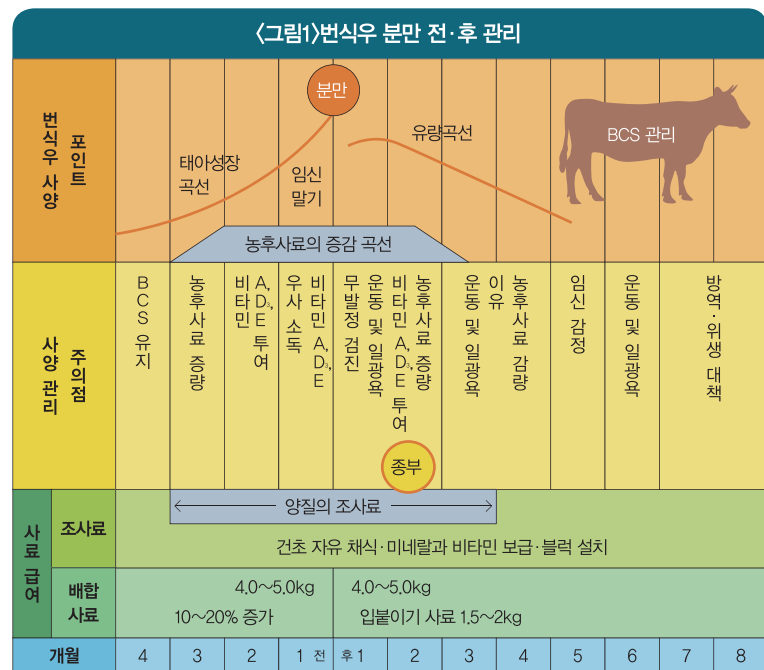
번식우 1년 1산 열쇠

- ✓ 충분한 에너지 공급
- ✓ 꾸준한 관찰
- ✓ 정기적인 검진

번식농가의 경쟁력은 1년 1산과 좋은 송아지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에서 나온다. 번식농가에서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하는 충분한 이유이다. 그런데 최근 번식농가에서 발정이 약하게 온다, 수정 횟수가 증가한다 등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번식우 1년 1산을 위해서는 적절한 급여사료, 소의 관찰, 성적 기록, 질병 대책, 환경 정리, 더위 대책 등의 기본적인 농장관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 아울러 번식우의 분만 전·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그림1>.

여기에 더해 번식우 수태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충분한 에너지 공급 이뤄져야

첫째, 분만 후 배란 기능 회복에 의한 첫 발정과 자궁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 발정의 지연이나 미약발정에 의한 발정 발견을 저하는 1년 1산을 방해하는 크나큰 원인이 된다.

분만 후의 난소 기능 회복에 관여하는 요인은 △번식우의 BCS 상태, 에너지 균형,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 상황(에너지·단백질·비타민·광물질) △난산, 이상 분만, 후산정체 등의 분만 사고 시 질환 유무 △난소정지, 난소낭종, 자궁내막염 등의 번식 질병 △포유 중인 송아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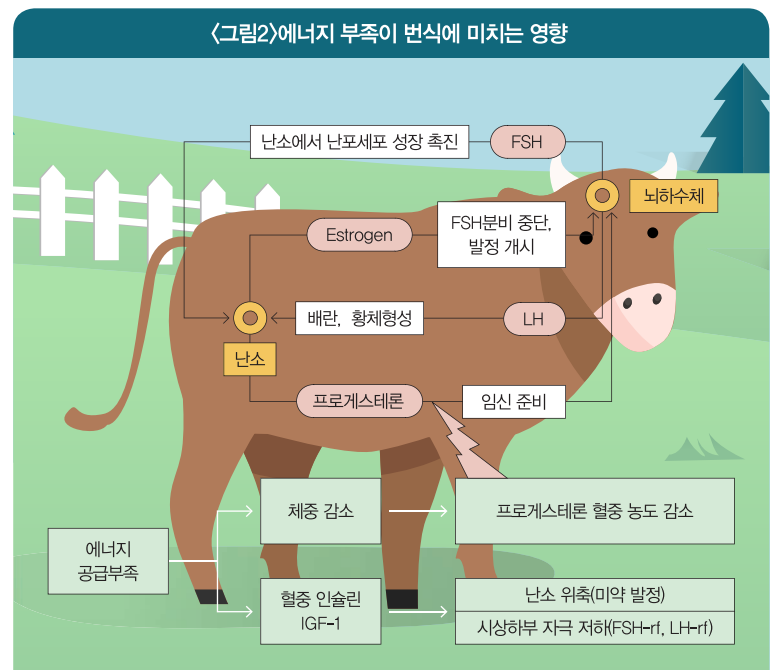
이 중 에너지 영양 수준이 번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급여 에너지 수준이 난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난소의 생식세포와 내분비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성선자극호르몬에 반응하는 내분비세포의 기능과 성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준다. 영양 수준이 낮으면, 황체에서 분비하는 프로게스테론의 양이 감소해 번식물이 저하되는 것이 이 이유에서다. 두 번째는 에너지 영양 수준이 성선자극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뇌하수체 성선자극호르몬의 분비 능력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성선자극호르몬이 뇌하수체의 기능도 조절한다는

이론이다. 세 번째는 호르몬의 혈중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영양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테로이드 대사의 주요 기관인 간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감소해 혈중 호르몬 농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결국 번식능력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해 결과적으로 난소의 다발정 등과 같은 이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그림2>. 이처럼 분만 초기 에너지 부족은 난포 발육을 더디게 해 발정과 배란을 지연시키고 황체 발달을 저해해 자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단백질 영양 수준이 번식능력에 미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반추위로부터 단백질 대사에 의해 생성된 유독성 부산물에 의한 난자·정자·초기 수정란의 생존성 저하, 섭취 단백질과 에너지의 부적절에 의해 나타나는 대사 이상, 대사 이상에 의한 내분비 이상 유발 등이다. 사료내 단백질 양은 혈중 프로게스테론 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반추위 내에서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 요구량보다 과다한 단백질을 섭취하거나 저에너지 사료를 섭취하면 혈중 프로게스테론 수준이 감소해 번식 효율이 저하된다. 이처럼 분만 전후 적절한 사료 급여는 번식우 번식 문제해결과 직결되므로, 분만 전·후 돌아먹이기와 늘려먹이기 실시는 꼭 고려해 보아야 한다.

꾸준한 발정 관찰 필수

둘째, 자궁 회복 이전에 발정 발견이 중요하다. 발정 발견을 향상은 번식을 80% 이상이 해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정 발견 실패에 의한 수정 기회



감소는 공태일수 증가와 분만 간격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정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찰이다. 발정 징후가 약한 개체도 발정 관찰을 자주하면 발정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아무리 적게 해도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은 발정 관찰을 해야 한다.

발정 행동으로는 흥분 상태, 보폭이 빨라짐, 승가하지 않고 울거나 뛰어다님, 승가의 허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외에 발정 점액의 유출, 외음부의 부음, 질점막의 충혈, 습윤 등이 있다. 발정 발견을 위해서는 소의 앞쪽에서만 관찰할 것이 아니라 소의 뒤쪽으로 돌아가서 △꼬리에 점액이나 혈액이 붙어 있는지 △음부가 충혈돼 있는지 등을 관찰하는 습관도 꼭 붙이시라 당부하는 이유이다. 이때 엉덩이에 혈액이 붙어 있다면 2일 전에는 발정이 왔다는 증거임으로, 2일 전부터 세어서 21일째가 발정 예정일이 된다.

단 모든 소가 21일 만에 발정이 오는 것은 아니고, 18일째나 24일째에 오기도 하므로, 발정 예정일 전·후에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매 회 같은 주기로 온다면 정상이다.

무발정 저수태 원인 파악해야

셋째, 정기적인 검진을 고려해야 한다. 첫 종부일 수나 수정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소의 관찰과 함께 △분만 후 30일~40일에서 무발정 우의 원인 검사 △분만 후 60일 이상의 미수정 우의 무발정 원인 검사 △2회 이상 수정우의 저수태 원인 검사 등과 같은 정기적인 검진도 고려해야 한다.

수정 후 30일 전후에서 혈액검사 또는 초음파 진단으로 임신 여부를 알아보는 등 저수태우를 조기에 발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GMD컨설팅 김중하 상무

한우가격 및 출하·사육 동향

2020년 11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20년	
					11월	11월	10월	11월
도축두수(두)		742,536	736,363	765,328	56,561	58,883	53,662	55,435
경매두수(두)		401,591	399,763	403,449	29,290	31,267	28,275	29,452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전체 평균	16,719	17,772	17,965	17,659	18,277	20,729	19,992
	거세	17,710	18,735	19,116	18,258	18,909	21,492	20,779
	비거세	12,108	12,813	13,439	13,746	14,182	13,436	13,578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암소	5,404	5,659	5,645	5,769	5,856	6,344	6,451
	송아지	암	2,919	3,130	2,830	3,191	3,271	3,528
		수	3,572	3,857	3,434	3,819	3,980	4,309
소매가격 (1등급, 원/kg)	등심	79,663	81,551	91,560	83,900	90,360	101,320	103,800
	양지	55,990	55,390	55,820	56,590	57,280	60,320	62,490
	설도	—	—	—	—	43,910	47,780	48,710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합제외 가격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기준일: 2020년 11월 1일~11월 30일

한우 사육현황 및 한우농장 현황

총 한우 두수	총 암소 두수	총 가임암소 두수(15개월령 이상)	총 한우농장 수
3,209,014두	2,053,873두	1,550,091두	88,828호

*기준일: 2020년 10월 말일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수소(거세포함) 월령별 한우 사육현황

구분	25개월령 이하	개월령						32개월령 이상
		26	27	28	29	30	31	
수소(두)	959,616	24,795	30,331	32,493	33,189	30,164	21,920	22,633

*기준일: 2020년 10월 말일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한우사육 마릿수 전망

-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 전망
 - 2020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320만 6,000두(2019년 대비 4.9% 증가)
 - 가임암소 154만 9,000두(4.4% 증가)·1세 미만 94만 1,000두(3.9% 증가)
 - 2021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328만 1,000두(2020년 대비 2.3% 증가)
 - 가임암소 158만 8,000두(2.5% 증가)·1세 미만 95만 2,000두(1.1% 증가)

〈단위: 천 두〉

구분	2020년				2021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전체 마릿수	3,038	3,226	3,237	3,206	3,149	3,319	3,332	3,281
1세 미만 마릿수	922	938	911	941	932	938	948	952
가임암소 마릿수	1,462	1,487	1,543	1,549	1,513	1,538	1,586	1,588

*기준일: 2020년 11월 25일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사육 마릿수 증가를 고려한 신중한 입식과 송아지 생산 조절 필요



웹진으로 만나는 **한우자조금**

한우 비즈링 무료통화연결음

한우자조금에서 비즈링(컬러링)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 사이트 www.hanwooboard.or.kr에 방문하셔서

메인화면 '알림·홍보' ▶ '홍보자료' ▶ '한우송 듣기' ▶ '비즈링 신청'

▶ **신청서 작성**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차후 비즈링 해지는 소비자센터 1544-3205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번호·통신사 변경 시 비즈링이 자동 해지되오니
한우자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신청 부탁드립니다.



한우자조금 소식지를 웹진으로 만나는 방법!

한우자조금 소식지를 아래 4가지 방법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PC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우자조금 웹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네이버나 다음 포털 주소창에 한우자조금 웹진 주소(www.hanwoonews.com)를 입력하세요.

세 번째 방법!

QR코드를 스캔하세요. QR코드 스캔 방법은 네이버 창을 연 후 검색창 옆의
카메라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hanwooboard.or.kr)에서
소식지 배너를 클릭하세요.

스마트폰 화면에 한우자조금 소식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세요!

안드로이드

- ① 위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웹진 화면을 엽니다.
- ② 웹진 <한우자조금>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 더보기' 클릭
- ③ '☰ 더보기'에서 '+ 홈 화면
추가'를 누르면 아이콘 생성 완료



아이폰

- ① 위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웹진 화면을 엽니다.
- ② 웹진 <한우자조금>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 더보기' 클릭
- ③ '☰ 더보기'에서 🍏 Safari로 열기를 클릭
- ④ Safari의 하단 '공유탭'을 클릭한 후
'+ 홈 화면 추가'를 클릭하면 아이콘 생성 완료

푸짐한 선물이 팡팡!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응모방법

옆의 방법에 따라 핸드폰에 웹진 <한우자조금> 아이콘을 생성한 뒤,
웹진 이벤트 페이지 댓글에 한우 응원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쓰기 아래의 정보란에 정보를 남겨주셔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당첨자발표 2021년 1월호 한우자조금 소식지 및 개별 연락
문의 02-324-6852



모두가 좋아하는 영양만점 간식
〈한우육포〉2명



뜨끈하고 든든한
〈한우곰탕세트〉7명



두툼한 한우패티가 버거 속에
〈한우불고기버거〉10명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상 경품에 대해서는 한우자조금 소식지 협력사인 디자인신화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

한우육포

김재섭, 이서아

한우곰탕세트

김두하, 금선주, 나종훈